

소설의 서술자 시점 제시하고,
예시문을 해당 시점으로 바꾸어 서술하기

사례 1

(가)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아댔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이었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가 등 뒤에서 푸드덕푸드덕 하고 닭의 췌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 보니 아니나 다를까, 두 놈이 또 열리었다. 겸손네 수탉이 덩치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덕하고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덕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밋을 부려 가며 여지없이 닥아 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킁, 킁 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아여 붉은 선혈은 똑똑 떨어진다.

김유정 <동백꽃>

1. 위 (가)글의 서술자의 시점 유형을 제시하고, 다음 글의 밑줄 친 문장을 해당 시점으로 바꾸어 서술하시오. (조건에 맞지 않은 경우 감점 1점, 총5점)

드디어 푸도피 저택이 돌아왔다. 푸아젤 부인은 크게 인기를 끌었다. 그녀는 어느 여자보다도 아름답고 우아하고 탱시가 있었으며, 미소를 띤 채 기쁨에 넘쳐 있었다. 모든 남자들이 그녀를 바라보고는 이름을 물어보며 소개를 받으려 하였다. 비서관들은 저마다 그녀와 춤을 추고 싶어 하였다.

모파상 <목걸이>

<조 건>

- '푸아젤 부인'을 서술자로 직접 등장시킬 것.
- 밑줄 친 문장을 시점만 변화시켜 '~다'형태의 한 문장으로 서술할 것.
- 한글 맞춤법에 맞게 서술할 것.

■ 모범답안 예시

시점 유형(2점)	1인칭 주인공시점
문장 서술(3점)	모든 남자들이 나를 바라보고는 이름을 물어보며 소개를 받으려 하였다.

■ 오답유형 사례

시점 유형(2점)	2인칭 시점
문장 서술(3점)	나는 인기가 많다
오답 분석	시점뿐 아니라 문장 형식도 바뀌어버리면 감점

소설의 서술자 시점을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예시문의 시점을 바꿔 서술하는 것이 핵심.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의 경우 오답 사례처럼 시점뿐 아니라 문장 형식까지 바꿔 답을 적기 쉽다.

사례 2

나는 나뭇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흠뻑로 나를 껴안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길이나 열이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 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론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날아 갑니다.

나는 나뭇배
당신은 행인.

2. (가)의 화자가 시적 대상에 대해 보이는 태도를 서술하고, 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구를 2개 찾아 제시하시오. (조건에 맞지 않은 경우 감점 1점, 총5점)

<조 건>

- 시적대상을 구체적인 시어로 제시하여 서술할 것.
- 한글 맞춤법에 맞게 서술할 것.

■ 모범답안 예시

(가)의 화자는 시적 대상인 '당신'에게 화성과 기다림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1)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 갑니다. 2)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날아 갑니다.

■ 오답유형 사례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날마다	
오답 분석	-태도 설명 없이 시구만 제시함 -시적대상인 '당신'을 제시하지 않음.

출제자가
조건에 충족

출제자가 제시한 두 가지 조건에 충족하는 답을 생각해 적는 것이 관건. 문해력이 부족한 중학생은 화자의 태도를 파악해 적지 않고 시 속에 등장하는 시구만 제시하기 쉽다. '시구'의 의미를 몰라 아예 적지 못하는 학생도 있다.

읽어도 뜻 모르는 중학생

사고력·성적 높이는 문해력 향상법

수학 선행을 가뿐히(?) 해내고 원어민과 술술 대화할 만큼 영어를 잘하지만, 정작 우리말을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학생이 많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이 부족해서다. 똑똑한 줄 알았던 우리 아이가 정작 제 학년 시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 오답을 썼다면 주목하길. 문해력 약한 중학생의 오답 사례와 함께 고득점을 위한 문해력 향상 실천 팁을 모았다.

취재 홍정아 리포터 jahong@naeil.com
도움말 김지수 교사(경기 발산중학교)·조남주 교사(서울 혜화여자고등학교)
참고 <나쁜국어 독해기술>

단어의 뜻 모르고 문제 이해 못해 오답 적는 경우 많아

시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 오답을 쓰는 중학생이 적지 않다. 유형을 살펴보면 단어의 뜻을 모르거나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단어의 뜻을 몰라 틀리는 경우는 객관식 보기에 나온 '지양하다'와 '지향하다'의 서술어 의미 차이를 몰라 틀리는 식이다. 국어 시험 지문에 등장하는 '옥황상제'를 '옥상황제'로 잘못 알고 있는 학생이 많단 얘기가 나올 정도. 공부의 밑천이자 기본기에 해당하는 '어휘'가 부족하면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 문해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지식하다’를 ‘지식이 높다’로, ‘대관절’을 ‘큰 다리 관절’로 답변하는가 하면, ‘을씨년스럽다’를 듣고는 왜 욕을 하느냐고 항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교사들의 전언이다.

특히 ‘~를 예로서 낱말 3개를 제시하시오’ 같은 주관식 문제에서 ‘단어’의 또 다른 말인 ‘낱말’의 뜻을 몰라 답을 적지 못하는 학생도 있다고. 경기 발산중 김지수 교사는 “문장 이해력이 떨어지면 과목에 관계없이 서술형·논술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얻기 힘들다. 답안 작성 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건에 맞춰 답을 적지 않으면 감점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의 문제에서 두 가지를 묻는 경우도 있으므로 문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정답을 적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여러 번 읽거나 써보며 글과 소통해야

독해력이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그친다면, 문해력은 글을 읽은 뒤 자기만의 언어로 ‘재해석’하는 힘을 말한다. 흔히들 문해력을 기르는 방법으로 독서를 꼽지만, ‘단순한 읽기’는 중요하지 않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독보다는 정독에 무게를 뒀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

김 교사는 “시간 부족 등 현실적 제약 때문에 많은 양의 독서가 어렵다면 ‘여러 번의 독서’도 좋다.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나 애니메이션과 연결해 책을 한 권 정하고 심심할 때마다 펼쳐 보는 것이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내용을 찾을 수도 있고, 이전과는 다른 시각을 갖게 되기도 한다. 이런 경험을 반복하면 문해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인다. 한 권을 읽더라도 자기 생각과 느낌에 집중하며 읽거나, 좋아하는 책이나 글귀를 옮겨 적는 필사도 추천할 만하다.

‘비판적 독해’가 문해력 키워

중학생 시기에 문해력을 더 깊이 다지려면 글에서 하는 말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하다. 글의 흐름을 보고 질문을 던지면서 글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모두 인습적인 형태와 색채만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치자. 이 문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질문 던지기와 예측하기를 동시에 하면서 읽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옳을까? 아마도 글쓴이가 말한 내용은 인습적인 형태와 색채

TIP

중학생의 비판적 독해 3원칙

- 1 글을 읽으면서 이후 글이 어떻게 진행될지 스스로 질문을 던진다.
- 2 예상되는 전개 방향과 내용을 생각한다.
- 3 글에서 그 예측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독해한다.

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점일 거야. 그런 주장에는 이유가 있어야 하니 왜 그런지를 밝히겠군’ 하는 식으로 앞으로 전개될 내용까지 예측하면서 비판적으로 읽으면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서울 혜화여고 조남주 교사는 “스마트폰과 모바일 기기, 디지털 미디어인 SNS의 영향 등으로 청소년의 읽고 쓰는 능력이 약화된 면이 있다. 주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많을 수록, 짧은 글을 읽을 때도 비판적 독해 습관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문자와 영상은 물론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조되는 추세”라고 전한다. @

